

오체투지 (하)

최현숙 (서울 서초구 양재동)

16년이란 시간은 가끔은 빨리, 어쩔 땐 지루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여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작은 딸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큰 딸은 중학생이 되었다.

글을 잘 쓰는 큰 딸은 인도여행하기를 막연히 희망했다. '꿈은 실현하라고 있지 간직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꿈을 표출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 꿈을 현실화시켜주었다.

내가 다니는 집에서 가는 성지순례단에 끼워 인도여행을 보냈더니 나이가 보살님들 사이에서 중학생 꼬마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바라나시 캔디스 강가와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봉까지 다녀왔다.

딸은 그해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청소년 백일장에서 '나의 꿈'이란 제목의 시를 써서 은상을 탔다.

어느덧 큰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작은 딸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장했다. 작은 아이는 학교공부를 잘했다. 그런데 외국 어고등학교를 다니던 2학년 때 갑자기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난 그 말을 그냥 귓등으로 넘기지 않았다.

미술학원을 한 번 다니게 한 뒤 담당 선생을 만나 물어보니 그만한 재능이라면 키워주는 게 좋을 것이라 했다. 그 말에 난 딸의 장래를 밀어주기로 결심했다.

반면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마음 한편은 아팠다. 물론 나는 그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만나는 것을 금지시킨 적은 없었지만 그는 지난 10년 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가끔 그 사람의 소식을 풍문으로 듣기도 한다. 그가 가끔 정신세계에 관한 책을 다루는 J출판사에서 명상이나 선과 요가 등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역사추구에 그는 현재의 생활에 지극히

만족하고 이렇게 달라진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고 했다. 또 목포 등지에 수련생들을 두고 정신현권과정이나 명상그룹을 지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에 관한 기억들은 겉으로 보면 잊혀진 것 같으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워질 수 없는 과거다. 오랜 세월,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으니 그 아픔이 내마음속에 단편적으로 보관된 채 가끔씩 패부를 찔렀다.

그날 내가 두 사람과 마주 앉아 바라보면

빛졌던 나와 동생의 체무를 갠아줄만큼은 행편이 나아진 것도 같았다. 세월이 지나도 양육비청구는 받을 수 있으니, 나는 그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좀 다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 인생의 황금기와 내 딸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명롭게 한 사람에게 자비심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심란배를 하면서 나는 그 대답을 찾게 됐다. 절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덕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다. 내 능력과

십만배 가장 큰 소득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

희망적이고 당당한 생활... 남 돕는 삶 발원

"남편을 용서하고 내 과거와 악수해야 한다"

유달산 아래의 흐릿한 회색빛 바다 풍경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십만배 오체투지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난 그 사람의 소식을 또 들었다. 전라북도 소재의 한 도시에 있는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단다. 부부가 헤어지면 남이라지만 자신의 행편이 나아져도 아버지임에도 아이들을 한 번 찾지 않는데 대해 쓸쓸하기도 하고 딸 포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딸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그가 부모덕하게 느껴졌다. 큰 딸이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어쩌다 찾아가도 그는 꼭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곤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양육비와 은혜에

인격에 대한 신뢰감이 무엇으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경이로웠다.

전에는 항상 마음이 자주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기도 할 때마다 현 상황이 내 능력에 부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이 고치니 나는 내 스스로 평가해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면 어떤 상황이라도 결심한 비를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는 놀랄 만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게 살며 미래 또한 그럴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100% 신뢰감이 바로 올 여름, 내가 딸을 비 오듯 쏟아져 쏟아져 질을 한 수혜의 결과였다.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



그림 · 문병성

도의 힘이다. 남보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남보다 더 좋은 꿈을 꾸면 된다. 그 희망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창밖의 풍경이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된다. 희망이 보이는 사람에겐 주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희망이 생기면 문제는 사라진다.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좋은 환경보다는, 간절 한 희망이었다.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었던 것도, 돌아보면 내가 비록 풍요롭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간절하게 꾸었더니 거의 다 실행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동안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간 내가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 쓴 양육비는 이제 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배도 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가 갚아야 할 빛이지만 끝없이 채무정리를 독촉하는 금융기관에 나는 지난 5년간 일정액을 수입에서 빼서 다 갚아냈다.

이제껏 그랬듯 앞으로도 내가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없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내면에 느껴진다.

그가 어디선가 뚜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견해를 달리하면 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아버지로써의 책임과 나에게 청산해야 할 빚을 일부러 회피했지만 그도 자신의 도리를 깨우칠 때가 되면 내가 독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갚을 것이니. 그전에 요구해봐야 악연의 고리만 더 세계 묶는 것이라.

부처님 앞에 앉아 다시 돌아본다. 지난 날 16년을 한결같이 "내 딸들이 남을 돕는 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기를 힘을 내게 주세

요'하던 내 기도도 이제는 끝이 얼마 안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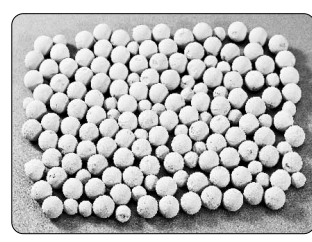
올해로써 십만배의 오체투지 기도는 끝이 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기도는 이어질 것이다. 내 능력이 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사회로 번져서 널리 쓰여지길 희망한다. 안으로는 내 과거인 그를 지우려 할 게 아니라 자비심으로 지난 날 그의 행위에 대해 용서하고 내 과거와 악수를 해야 한다. 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악연의 고리가 운회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수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spark@buddhapia.com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전신증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봉어를 넣으면 봉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봉어는 정상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받아 봉어를 넣으면 봉어는 배를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힘을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작용,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항상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가격값은 사재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타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머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053)964-0858
휴대폰: 011-804-1748

제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 기초반: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 중급반: 각종 재의식(사물다루는 법)
- ◆ 고급반: 바라 및 승무작법

기 간: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 시: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한주 아파트 옆)

연락처: (055)745-8419

삼남 영남 범음·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과 합장
강 사 원 명

최첨단 "원적외선 복시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고 기층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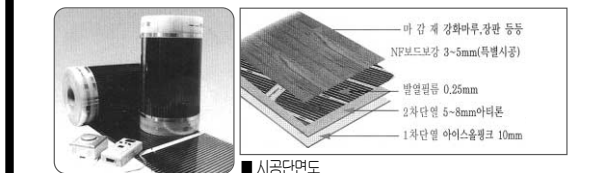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시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꾸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내방 평균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12월 기준

| 구 분 | 필름난방 | 심야전력 | 도시가스 | 전기판넬 | LPG | 보일러등유 |
|----------|----------|----------|---------------------|---------|----------------------|---------|
| 소비자 가격 | 66.8원/kw | 36.8원/kw | 640원/m ³ | 668원/kw | 1250원/m ³ | 1000원/l |
| 열효율(%) | 100 | 95 | 90 | 100 | 90 | 85 |
| 연료소비량(원) | 588kw | 1650kw | 124m ³ | 1569kw | 124m ³ | 182l |
| 월간난방비 | 39200원 | 80700원 | 79360원 | 104800원 | 155000원 | 182000원 |
| 단가저수 | 100 | 155 | 202 | 267 | 3950 | 464 |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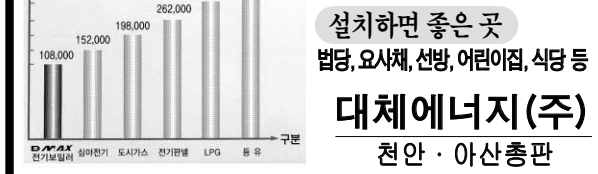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0평 난방비 (10월~12월 기준) 시공합니다

(연료비 50~75% 절감)



유사물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정품(미국칼로리리쿠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전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기공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애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경추: 편두통, 목통증, 신경과민, 주시장애, 두통, 어지럼증,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흉통, 배, 간장, 위장장애, 소화장애, 심장장애, 허파장애, 위장장애, 소화장애

요추: 변비, 요통, 관절통, 좌골신경통, 하지수면 장애, 허리통증

신경: 좌골신경통, 전립선, 생식기장애

미세: 척추, 뇌, 심장, 주시장애, 호흡

특전 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종 수료증 부여 (신속수학인정)

수련안내

● 기 간: 2006년 10월 31일부터

● 주 간 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40만원(숙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체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딱딱리, 특수교정법, 운동치방법

카이로프랙처, 명상 혈통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랙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